

등록번호	전주지곡초등학교-12305
등록일자	2022. 10. 24.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공개

위원장	학교장

전주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제108회 전주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1차 본회의		
회의일시 및 장소	2022. 10. 14.(금) 15:00, 학교운영위원회회의실		
참석자명단	출석위원: ○○○, ○○○, ○○○, ○○○, ○○○ 출석교원: ○○○, ○○○, ○○○ <div>(15명 중 9명 참석)</div>		
회의진행순서	<div>1. 개회</div> <div>2. 국민의례</div> <div>3. 학교장인사</div> <div>4. 위원장 개의 선언</div> <div>5. 보고사항</div> <div>6. 안건심의</div> <div>7. 기타사항</div> <div>8. 폐회</div>		
상정안건	제107회 임시회 시 기타협의사항으로 안건 상정된 내용 논의(주차장)		
1. 제107회 임시회 시 기타 협의사항으로 안건 상정된 내용 협의: 현안문제(주차장)			
가. 발언 내용			
• ○○○ 현안문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필요			
• ○○○			
- 2021년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는 주차 관련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언론에 많이 나옴			
- 우리 학교가 큰 규모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 하지만 오늘처럼 논의가 된 이유가 주차장 관련하여 학교가 학부모와 사전에 소통이 없었고 학부모님들의 민원 제기로 논의가 된게 일단 제일 큰 문제임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 많음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들 많음			
- 지난 회의 때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도출이 안 되어 긴급 임시회의 소집			
• ○○○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 학교 주차장이 부족하니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하는 뉘앙스로 느껴짐			
• ○○○ 유아놀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한다는 회의한 자료가 있는가요?			
• ○○○ 회의 등 논의, 협의 내용을 찾아보았으나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이 동건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필수 사항인가요?			
• ○○○ 심의사항 중 기타라는 부분이 있음. 기타라는 부분은 널리 열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임			
아이들이 교육과정에서 활용하는 공간이었으므로 학부모와 어떤 협의의 필요성이 있었음 그런데 협의가 없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음			
• ○○○ 안타까운 부분인 건지 아니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함			

- ○○○ 법적인 문제는 우리 법에 정해진 심의사항의 기타부분을 넓게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움, 이 부분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반목이 생기고 서로 이제 의견에 이견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합치를 하는 부분이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 협의체 기구로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걸려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 ○○○ 지금 이 회의는 주차장을 처음 놀이터로 복원하자는 논의잖아요.
주차장으로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중간 과정이 있으니까 이 주차장이라는 공간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 ○○○ 지금 강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음 처음 공사를 할때는 교육청하고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설계 도면도 나오고 공사를 함. 그러나 강당과 본관 사이의 지붕이 짧아 비가 내리면 강당을 갈 때 비를 맞는게 원 설계임
그래서 아이들 동선에 비가 올 경우 비를 맞게 되니까 지붕을 연장 해 달라고 학교에서 요구했고 교육청에서 검토한 결과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금 지붕공사를 연장해서 하고 있음 이처럼 학교 상황과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교육청과 논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 보완, 수정, 개선하면서 공사진행을 하게 됨
저도 유아놀이장이 언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는지는 모름. 제가 오기 전부터 그리고 2010년도에 근무하였던 선생님들도 주차 공간이었다고 하였음
18학급으로 개교를 했지만 그때와 지금 상황은 아주 달라져 있음
- ○○○ 그러면 학교 인가 때부터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 ○○○ 인가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없음. 저도 모르니까요..
- ○○○ 유인물을 보면 개교 당시 유아 놀이시설 공간은 초등 놀이 공간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병설 유치원 개원을 감안해서 만든 놀이터라고 생각됨
- ○○○ 우리 아들(현 23세) 학교 다닐 때는 놀이공간에서 저학년 수업 및 자연학습장으로 사용, 우레탄 재질로서 처음엔 주차하지 않았음, 어느 순간 차들이 한 대 두 대씩 주차를 하게 된 것 같음
전주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문의한 결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공사한게 아니고 바닥 전체공사를 하면서 우레탄 바닥이 뜨니 그곳도 공사를 해달라는 신청을 해서 승인을 해 준것이라고 함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난 경우인 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주차장을 해달라고 허락을 한적이 없다고 함
지금 중요한 것은 소통을 해서 제자리로 아니면 또는 협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함
다수의 위원님들의 생각은 주차장 라인이 9개가 있든 15개가 있든 그 공간에 차가 있다는 건 아이들의 통행을 방해, 전면주차의 경우는 급발진 사고라든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임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니까 주차장으로 할게 아니라 일반 아파트 공동 입주인 대표에서도 주차 공간이 없으면 입주인 전주민의 동의를 받아 과반수 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곳은 처음부터 아이들의 공간이었던 곳임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 제공해야 할 공간을 왜 다시 주차장으로 하는 것, 현재 학교 내에 차량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취지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학교는 오히려 주차장을 학교 내에다가 또 따로 짓겠다는 것임
지난번 회의 때는 주차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잘 몰라 주차와 통행 간격을 1.7m도 좁으니 더 확보해달라는 것이었지만 회의를 한 결과 위험성과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
학부모 협의 결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음
학교장과 지원청의 수많은 합의가 있었고 원안에 대해 바꾸는 역할이기 때문에 기타 안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과정 중에 소통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 교육지원청과 수많은 합의를 거쳤는데 협의 과정 중에 학부모의 의견 배제된 것이 주된 안건으로 봄 안전을 고려했을 때 물려서면 안된다는 생각을 함. 과장상, 안전의 문제에 대해 취합해서 말씀드렸는데 교장선생님께서 교직원들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 하셨기에 원래 학생들의 공간이므로 협의 대상이 아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게 취지임
- ○○○
유아놀이공간에서 주차장으로 되는 과정을 따지기엔 큰문제가 되지 않음
학교측은 양보가 없는 것 같고 기존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 ○○○
공사하기 전에는 거의 15대정도 주차 했음
 - ○○○
15대 주차공간 말고 주차할 공간이 또 있는 건가요? 있다면 아이들 놀이공간으로 돌려달라는 학부모위원님들의 취지가 강한 것 같음
 - ○○○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학부모님들도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학교 교직원들도 구성원이라 의견 수렴을 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 모색 필요
학교에서도 아이들 안전 최우선 생각 주차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해 왔으나 아이들 안전을 간과한 것은 아님
학부모님들의 민원처럼 통학로를 막고 주차장을 만든 것은 아님 단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염려하고 충분히 공감은 됨 따라서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의 어떤 현실적인 당면 문제를 갖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임시회의를 개최한 것 만큼 충분한 논의 필요
 - ○○○
교직원 의견을 대표하여 말씀드림
18학급 개교한 우리학교 10년만에 3배 증가, 처음 유아놀이공간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음, 외부교육이 일주일에 한 학년당 1개 적게는 4명, 많이 하면 80~90대 주차공간 필요
현재 48개 있음 주차공간 턱없이 부족, 문제는 놀이공간 활용으로 부적합한 이유는 웅벽위의 안전 헬스 오래되고 물건 던져서 배상문제 발생한 적 있음
교직원 8시 30분 출근 시 8시면 다 채워짐, 주차 공간이 없어 출근시간 이후에 도착해서 오는 다급함과 자신의 공간이 없다는 불안감이 수업 중에도 드러날 우려가 있음. 하지만, 안전에 대하여는 항상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기에 전체적으로 고려 필요
자신뿐 아니라 교직원 모두가 안전사고 및 통학로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음. 저희들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논의한 바 있음
주차장은 교육환경으로 보아야하는건가요, 시설로 보아야하는건가요?
 - ○○○
주차장은 학교시설물이지만 재산에 등재되어 관리되지 않음 유아놀이터였을때에도 탄성매트 등이 깔아져 있어 공작물 등의 재산은 아님 놀이공간만 구성되어 있음
 - ○○○
놀이공간이 아니라 놀이시설로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음 주차장 15대 확보되면 교직원 주차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
 - ○○○
기존에 거의 해결이 되었는데 공사로 인한 주차공간이 없어져서 교직원 출근할 때부터 불안한 마음으로 함 제 입장에선 위원, 위원장, 교직원의 의견이 중요
 - ○○○
놀이공간이 될거라 생각했으면 헬스 등 수리했겠지만 놀이공간이라고 생각 안해서 수리하지는 않았던거 아닐까 싶음 기존대로 하면 15대 주차가능 하고 주차법상 9대 인가요?
9대만 있으면 이게 타협점이 되는 건가요? 아님 15대를 기존처럼 하는 건가요?
 - ○○○
더 많은 차를 주차하고 싶지만 주차법상 통학로 넓게 해서 9대 정도만 주차가능
 - ○○○
교육지원청은 안전 법규에 대해 조정을 한거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고 함

학교에서는 바닥공사를 원했던 거지 주차장을 해결해 달라고 한게 아니라고 함

◦ ○○○

통로 처마 공사할 때 교장과 교사 협의하여 학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됨
시설은 많은 구성원들의 협의가 필요, 이전에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이걸 더 좋게 하려고 한 것으로
학교시설 확장보수라고 생각함, 학부모와 모든 것을 협의할 순 없음
라바콘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10년이상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이곳에 가드레일을 쳐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애초의
놀이공간이었던 곳이었으니 주차장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됨

◦ ○○○

지금까지는 소통이 되지 않았고 교직원이 아닌 아이들 생각을 해야 함, 18학급에서 43학급으로
의 증가로 인하여 아이들의 공간도 줄어듦

◦ ○○○

안전이 우려되어 안전상의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대로 복구를 하고자 하는 건지
명확히 하는게 필요

◦ ○○○

원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이라 놀이공간을 아예 배제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
놀이공간으로 위험했다고 하면 거기다가 아이들 위험하지 않게 이중 삼중의 막(펜스)을 설치했을
거라고 생각됨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 안전처럼 아예 못쓰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인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임시회를 소집하게 됨

운영위원,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10년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했지만 원래 아이들의 활용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한다면 앞으로 아이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반면, 한번 주차장이 되 버
리면 바꾸기가 어렵다고 봄, 9대 주차가 되면 주차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냐가 문제임

◦ ○○○

놀이공간 부족한 거 맞음 학교측에서도 놀이공간을 넓히기 위해 증축공사를 통해 아이들 놀이
공간을 넓혀줬음, 서로 협의를 해야지 설계도를 보고 하면 무리한 논의 아닌가 싶음

◦ ○○○

도면을 보면 그냥 다 주차하며 사용하겠다는 것임 15대 20대 다 된다는 내용
운동장 골대 옆으로 비상차로 진입구간인데 5m가 우리 법정주차라인이고 6m차로 확보해야 됨
행사 차량, 비상 차량 경우 회전반경에 따른 38번 위치 잘못된 것 같음
학생들의 통학로 사이데 조경을 심어서 조경 턱을 만든다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도 안전하게 드나
들면 되겠구나 싶는데 여긴 그렇게 전혀 없어보임

공사를 할 때 주차장 반절이든 통학로 반절이든 명확하게 하여 안전성 확보 공간 필요
위치를 바꿔야 안전함

◦ ○○○

현재 학교 공사 중이라 주차장이 더 없음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
9대 주차하면 완전히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선생님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주차장을 생각할 것임

◦ ○○○

공사 이전에도 양쪽에서 협조가 없었음 방과후교사 관련해서도 주차 문제는 이전부터 문제였음
자연학습장에서 학습할 때 주차장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음 자연학습장을 사용할 때 주차 안전상의
문제 있음

◦ ○○○

차량 5부제 실시하는지 궁금, 안하고 있다면 서로간 타협점이 필요함
학교밖엔 주차를 안하고 학교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 ○○○

주차 문제는 어디에나 있음 주차 문제는 당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

안전이 제일 중요하므로 꼭 필요하면 안전장치(휀스)를 설치하는게 중요

후문 1번 출입구 공원놀이터 인도쪽에 2m나 2m 50의 사선 주차로 개방 주차장을 만들면 10대 정도 확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음

◦ ○○○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시점에서 해결을 보는 것 절충안 또한 있음
안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편의성 있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

이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음

◦ ○○○

주차장이냐, 놀이 공간이냐, 주차장 9대냐? 각 의견의 수를 알고 싶음

◦ ○○○

여기에 주차대수 8대~9대 주차하려면 주차공간에 아이들이 못 들어가게 아예 막아야 함
운동장이든 자연학습장에서든 아이들이 주차장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음

◦ ○○○

보도를 만들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들어야 함. 환경개선요구가 필요함

◦ ○○○

아이들 공간으로 하기도 어렵고 주차장으로 다 하기도 어려움

생태 놀이터 보행로 안전확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안전확보가 필요함

환경공사를 해서 더 나은 주차장 조성

주차장은 회전하는 것도 어려움 숲 놀이터 보행로에 대해서도 안전확보 필요

◦ ○○○

주차장 대수는 조율 필요

◦ ○○○

아이들에게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주차장에서 놀라고 하지는 않음

공간이 크지도 않고 활동하기도 어려움, 안전상의 문제를 생각해도 놀이터로 사용하기 적합하
지 않음. 놀이터로서는 반대 몇 대 주차할 지에 대해서 논의하는게 필요

◦ ○○○

원래 아이들의 공간이므로 돌려줘야 함 공사로 인해 아이들도 학교생활이 힘든 시기이므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놀이공간으로 개방해야 함

◦ ○○○

다수결로 인한 의사결정은 반대함.

현재 중정, 어울마당, 강당, 온누리실 등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음

학급이 줄어들면 아이들은 그 장소를 체육 공간으로 생각도 하고 있음

주차장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급식실 5대, 소방차 진입 등 최소 몇 대라고 확보하지 않으면
갓길, 아무 빈 공간에 주차하는것도 전부 통제할 순 없기에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수 있음

◦ ○○○

9대 주차중 1공간 빼서 8대 주차공간은 확보해야 함

놀이공간으로 환원하면 안전상의 문제 발생, 낭떠러지 위험, 추락 경고문도 이미 있음.

주차공간으로 쓰되, 안전, 통행로 불라드 등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이 어떤지

◦ ○○○

8대 주차하는 것도 의견청취하여 최종결정 협의 필요

◦ ○○○

서관 동관 등 불이 났을때 소방차는 운동장으로 진입해야 함

주차장에 파킹을 해서는 안된다 생각

주차장을 해체할 경우 1천만원이상 소요, 8대 파킹할 수 있게 해 주시며 회전반경 6m 거리를

두어 안전확보 하여 자연학습장으로 분리될수 있도록 볼라드 설치
소방차 진입로 가능 여부 고려 필요

◦ ○○○

소방차 진입할 때 꺾어서 들어와야 하잖아요?

◦ ○○○

볼라드 설치할 때 소방차 운동장 진입할 그 공간에는 볼라드 설치하지 않음

◦ ○○○

볼라드 미설치할 경우 차는 어떻게 막나요? 소방차 진입할시 꺾어야 할 때 각이 안나오는 것
같음

◦ ○○○

소방차 진입 시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운동장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차가 꺾어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 ○○○

안전요원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소방차가 진입 가능하다고 나오나요?

여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건가요?

◦ ○○○

12월 전까지 공사 끝날 때까지 8대~9대 주차5~6대 주차해서 해결이 된다면 운동장 전면 개방해
도 무방함 그렇지만 안전을 생각한다면 5대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됨

◦ ○○○

학교가 문 닫는 시간에 지역 주민들이 주차를 함 개방형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함

◦ ○○○

돈하고 관련되어 절차 복잡함, 공공시설 무료 개방을 하더라도 이것은 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 논의하고는 거리가 있음

볼라드 후면 주차는 안 된다고 생각됨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6~7대인데 주차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음

다수의견이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시설 부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보임

◦ ○○○

애들 안전을 생각해서 볼라드는 치지 못할 것임 현재 라바콘을 차량 6m 앞에 놓았음

교직원들도 9대만 파킹하고 있음

◦ ○○○

여러 의견을 모르시는 분들은 청취를 안 했으므로 그런 방향으로만 답변하실 수 있을 거 같음

◦ ○○○

오늘 그래서 8명 이상 과반수 의원의 회의를 거친 거 아니겠습니까?

◦ ○○○

다수결 의견에 따라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

최종 결정은 합의 결과에 따라 하는 거죠

◦ ○○○

8대 주차 가능한 것 같음 그 안에 볼라드 설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음

왜냐하면 거기서 소방차 들어갈 공간이 안 나올 수 있음

소방서 차량이 도는 게 힘들다고 하면 볼라드도 설치 못할 수 있음

◦ ○○○

높이 1m 정도의 화분을 놓는 게 어떨지 모르겠음

◦ ○○○

아이들 안전 생각한다면 지금 볼라드 위치에서 더 위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

-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슈가 될 수 있음
- ○○○
지역 주민들이 주차를 못하게 한점이 마음 아픔
그린 1차 지역주민과 소통 필요
 - ○○○
8~9대는 공사 끝나기 전까지 주차 가능, 공사 끝난 후 막는게 어떨까요?
유아 놀이공간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소방시설 등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음
 - ○○○
학교에서 안전요원으로 2~3명 더 신청하면 좋겠음
 - ○○○
지금 이쪽만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빼달라고 한 것 같음 왜냐하면 이 공간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임. 우리가 이 부분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한 주차장만 빼달라고는 했지만 만약 여기에 불라드나 인도를 설치할 경우, 소방 진입 자체가 안될 것 같음. 소방방법에도 저촉됨
 - ○○○
주차장 공사하고 소방차 대동해서 실제 훈련해 봤어요?
화재가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아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음
 - ○○○
유선우 위원님과 한상준 위원님은 소방진입을 위해 주차는 안된다는 의견이신 것 같음
 - ○○○
주차 8대는 확보했으면 함
 - ○○○
한 대라도 더 주차하였으면 함
 - ○○○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전체 공개해서 전원 투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음
 - ○○○
학생 안전을 생각해서 옹벽 위에 위험한 펜스라서 아이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자동차로 막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듦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바로 나가지 않는 차량에 한해서는 주차해도 괜찮을 것 같음
 - ○○○
교직원들 입장에서는 주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
그건 학교 자체적으로 조율하도록 하겠음,
 - ○○○
80~81대 주차를 주5일제로 20대씩만 주차한다면 차량 대수는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됨
안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은 어떤 것인지가 관건
학교운영협의회 질의를 해 놓았음. 다시 한번 회의를 가졌으면 함
앱으로 오픈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오픈하였을 경우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음
 - ○○○
의사결정할 때 학부모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항상 많이 하시잖아요. 의사결정할 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기가 좋음
 - ○○○
임시회를 한번 더 하였음 함
 - ○○○
회의를 한번 더 진행하는 게 좋을 듯 함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체 동의함>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10월 28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타 협의사항

기록자: ○○○ (서명) 간사 ○○○ (서명)